

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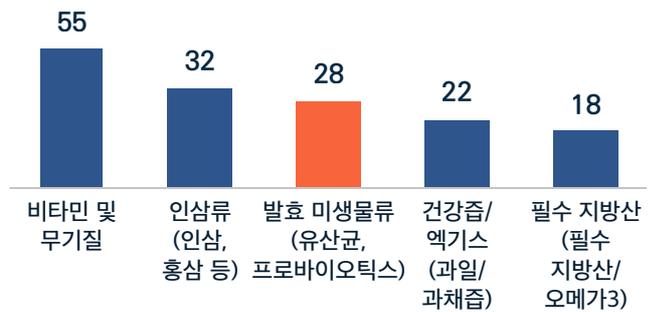
코로나 발생 이후 우리 국민, '건강 기능 식품 섭취 많아졌다' 78%

-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인체 면역 기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감염율이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인데,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우리 국민 5명 중 4명 정도(78%)가 건강기능식품을 더 많이(자주)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
- 특히 섭취량을 늘린 건강기능 식품으로는 '비타민 및 무기질'이 55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'인삼류' 32%, '발효 미생물류' 28%, '건강즙/엑기스' 22% 등의 순으로 나타나 면역력 관련 건강 기능 식품 섭취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

[그림] 코로나19 발생 후 건강기능식품 섭취 많아졌다(그렇다' 응답률) (%)



[그림] 코로나19 발생 후 섭취량을 늘린 건강 기능 식품 (중복 응답, 상위 5위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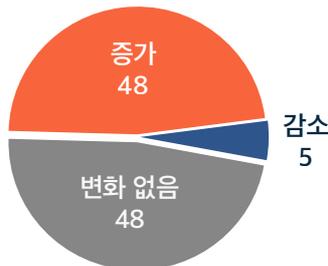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'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식품 소비 분야 영향 분석' 2020.5.20. (전국 성인 식품 주 구입자 20~50대,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0.03.11.-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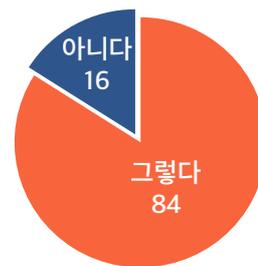
● 우리 국민 2명 중 1명, 코로나 영향으로 '가족과 식사 늘었다'

- 우리 국민 중 코로나19 확산 이후 '가족과 식사 횟수 늘었다'는 응답이 48%로 나타났는데, 외출 자제와 외식 감소 등의 이유로 가족과 식사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
- 또한 '국내 농식품의 생산 및 자급이 중요하다'는 응답은 84%인데 그만큼 식료품 수급의 불안 심리로 인해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

[그림]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과 식사 횟수 변화** (%)



[그림] 코로나19 이후 '농식품의 국내 생산 및 자급이 중요하다'(응답률)***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'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식품 소비 분야 영향 분석' 2020.5.20. (전국 성인 식품 주 구입자 20~50대,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0.03.11.-16)

**감소는 '매우 감소+약간 감소', 증가는 '매우 증가+약간 증가' 수치임.

*** 그렇다는 '매우 그렇다+그런 편이다', 그렇지 않다는 '전혀 그렇지 않다+그렇지 않은 편이다' 수치임